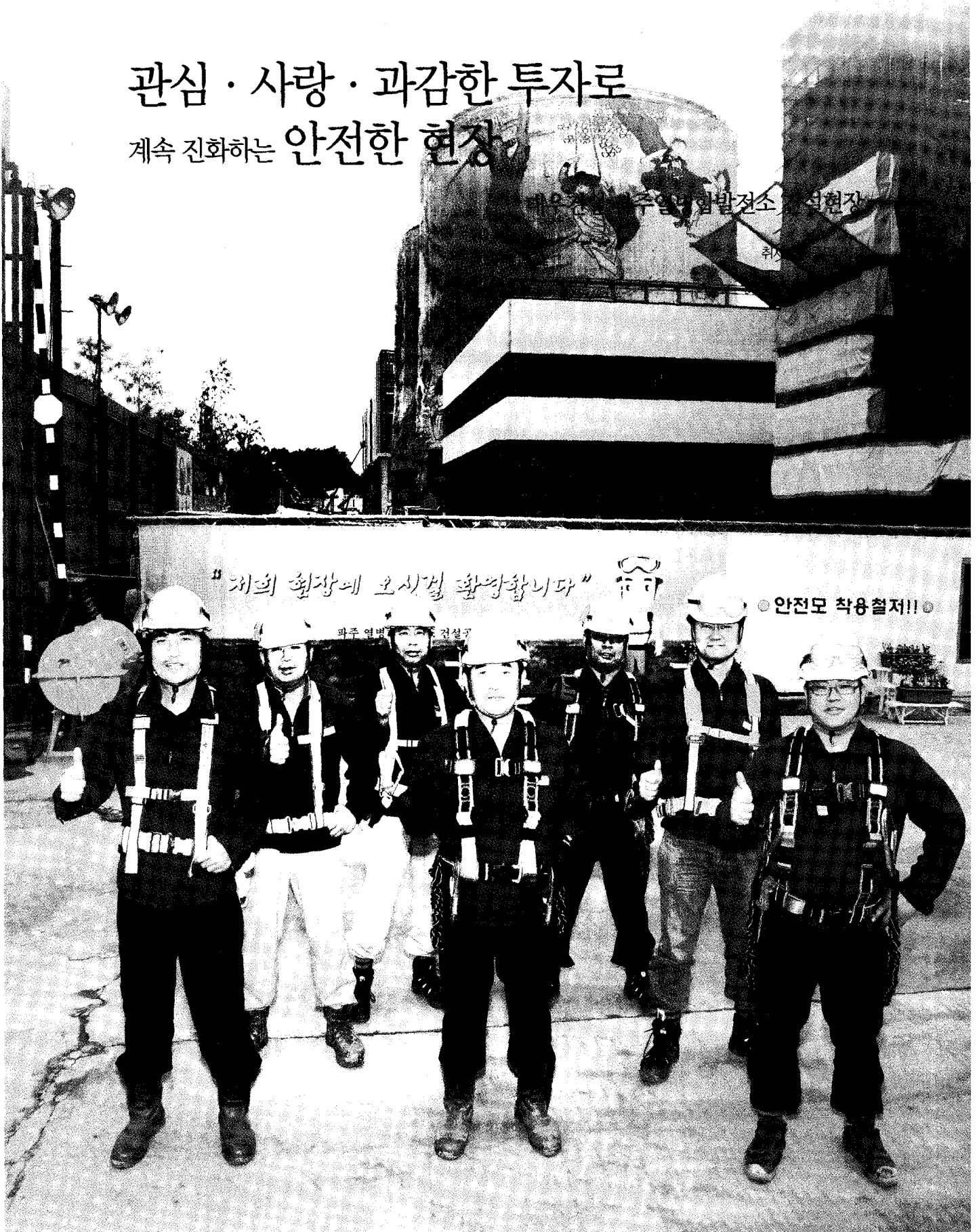


관심 · 사랑 · 과감한 투자로 계속 진화하는 안전한 현장





얼마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위험요소가 많고 현장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작업 환경이 결국 사고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인데, 건설직업이 3D 업종으로 사회에서 하층민의 직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기 쉽고, 건설현장에서도 재해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러나 소외된 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끌어 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어 찾았다. 입구에서부터 이곳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문구 “우리 현장에서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가 눈에 들어온다.

400Gcal의 열병합시설과 부대시설, 515MW급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파주열병합발전소(대우건설)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새로운 안전기법 도입을 통한 선진 안전관리 실현,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위험요소 ZERO화, 사전 안전성검토에 의한 계획적 안전관리로 국내 발전소 현장의 표본을 그려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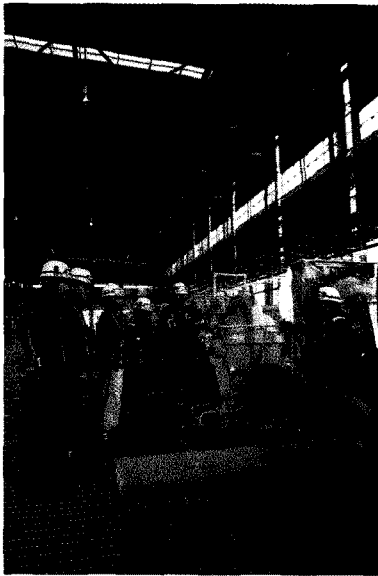
안전은 기본이라고 했다. 기본을 충실히 하는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은 무사고, 무재해에 목표를 두고 철저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이 이곳의 기본이다.

신규채용 근로자에서부터 정기, 특별, 관리감독자 교육은 필요 이상, 소수의 태국 국적의 근로자 11명은 3국인 안전교육으로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소외받는 자, 열외자 단 한 사람도 없다.

지하에서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아이디어는 참신하다. 지하에서 통신 3사의 휴대폰 송수신기를 설치하여 전파 영역확대는 비상사태 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편의 제공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근로자 건강을 위한 배려도 남다르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위해 인근 병원과 연계한 현장 출장형식의 건강검진과는 달리 경력이 풍부한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여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실에서는 1차 검진결과와 2차 검진대상에게는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생긴 사소한 상처를 치료해 줌으로써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휴게실, 근골격질환 예방을 위한 헬스장 운영,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탁구장 운영에서부터 제빙기,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은 현장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맛 나게 만든다.

선진안전관리기법 도입

파주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는 다른 어떤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성평가 그리고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은 이곳이 유일하다.

시뮬레이션 구성은 6개 주요 공정으로 건축방법과 설비 설치방법 그리고 안전작업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요소 등 모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3D 시뮬레이션은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맨 처음 보는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각 공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40편의 재해사례와 안전작업 수칙에 대해 알 수 있고 모든 작업자는 5~6분씩 총 2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야 한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성평가사례는 그 아이템이 참신하고 혁신적이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안전기법은 현장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8대의 안전감시 카메라는 디지털방식으로 주말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자택이나 원거리 출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위험요소 ZERO화

조선후기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 신윤복의 단오도가 이리도 컸던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 중에 수십미터 높이의 탱크 크기의 그림이 있었던가?

파주열병합발전소 추락방지망은 박물관에 걸려 있는 초대형 그림을 빙볼케 하는 유명한 예술작품과 꽃길은 방문하는 사람에게 미관의 즐거움을 준다.

잘 정돈된 현장 거리, 가지런히 놓여있는 안전통로 그리고 꽃길, 수직 방망, 예술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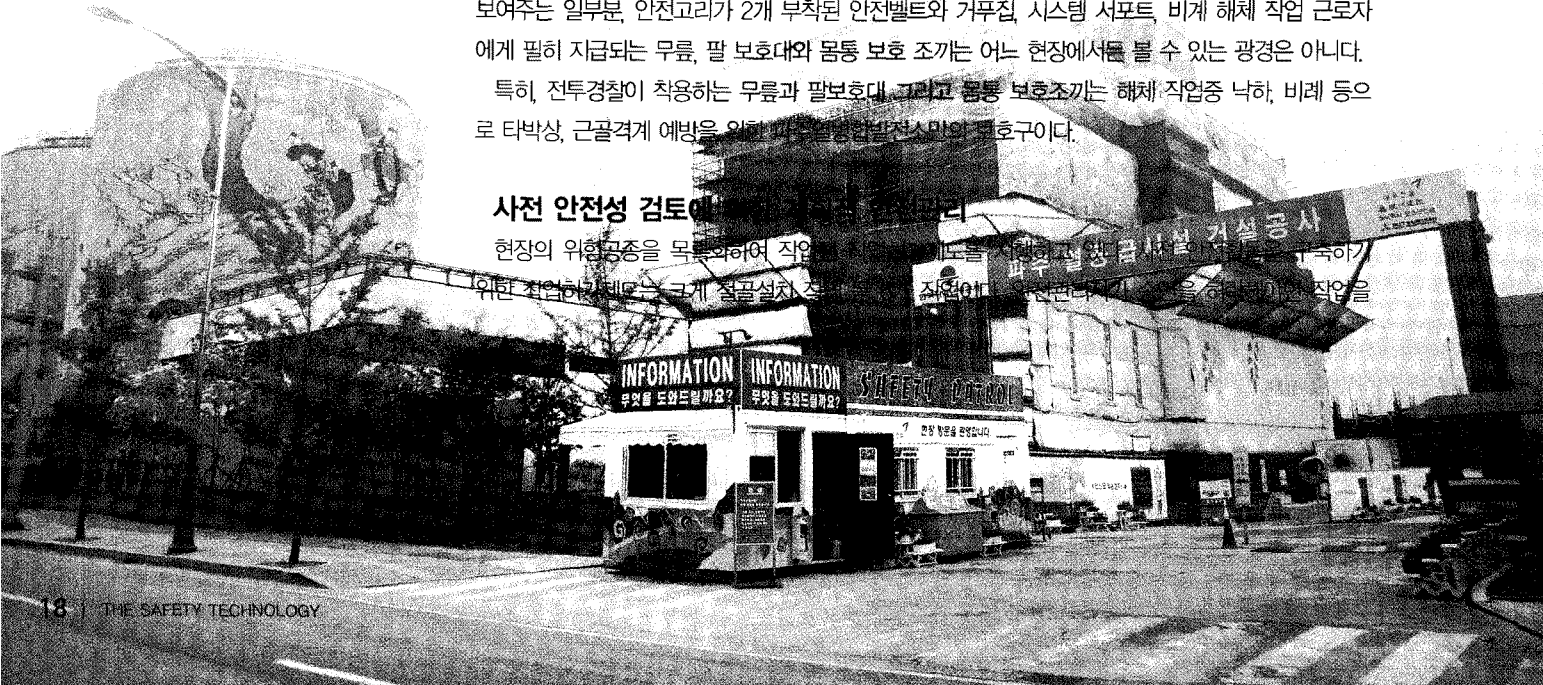
멀리서도 예사롭지 않은 현장임을 직감케 한다.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 활동으로 단 한 건의 위험요소를 허용하지 않는 이곳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현장 진공청소기로 바닥에 먼지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청결에 있어서도 으뜸이다. 모든 근로자의 안전도 위에는 보안경이 부착되어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부분, 안전고리가 2개 부착된 안전벨트와 거푸집, 시스템 서포트, 비계 해체 작업 근로자에게 필히 지급되는 무릎, 팔 보호대와 몸통 보호 조끼는 어느 현장에서든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특히 전투경찰이 착용하는 무릎과 팔보호대 그리고 몸통 보호조끼는 해체 작업중 낙하, 비례 등으로 타박상,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파주열병합발전소만의 필수구이다.

사전 안전성 검토에 의한 안전관리

현장의 위험공종을 목록화하여 작업 전 안전성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하기 전에는 크게 철골설치 작업,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작업허가제도는 협력업체의 안전참여 의식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또 있다. 모든 협력업체는 시공전에 자발적으로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를 해야만 한다. 여기는 협력업체 대표까지 참가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안전하게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파주열병합발전소의 대우건설 사람들의 생각은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을 안전한 장소로, 모두의 노력으로 무재해 준공을 향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의 안전수준에 만족해 하지 않는다.

안전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양희영 현장소장 이하 모든 대우건설 사람들은 이곳 보다 더 잘하는 곳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안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음을 연다.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는 파주열병합발전소 사람들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아이টেম을 찾아 해외로까지 벤치마킹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안전, 이것이 무재해 준공 

대우건설 파주열병합발전소 양희영 현장소장

건설 경력 33년 중 28년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가장 많은 일과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현장 근로자일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민의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재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절대 우리 현장 근로자들만은 다치게 해서 안 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비용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성 되었다고 한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스스로 안전해지려는 의지가 없는 안되는 것인데,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은 곧 가정을 보호한다는 존재 가치의 의미가 있는 안전,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성안전인 것입니다.

관심과 존중은 또 다른 힘이 되어 현장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의 소신은 무엇보다 관심과 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의 관심과 근로자를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려운 작업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과 존중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짝트고 곧 현장에서의 무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6년 전 인천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반장님이 계십니다. 그 때 이분은 IMF로 사업이 망하고 모든 재산 또한 잃으면서 신용불량자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주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곳 3번째 현장까지 함께 하면서 차츰 안정된 생활을 찾고 가족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그냥 일용직으로 여기고, 그분 또한 환경에 지쳐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인연은 없었겠지요. 그분의 긍정적인 사고와 현장에서의 관심과 존중이 오늘의 좋은 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다시 국제 경기 악화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현장을 찾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집으로 웃으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양 희 영 현장소장



강 희 성 팀장